

연중 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제천 송화사 성금 160만원 기탁



충북 제천 송화사(회주 경암·불입중 총무원장은 남아서)가 지진해일 피해민 돕기에 써달라며 기자회견에서 모은 성금 1백60만원을 2월 7일 본사에 기탁했다.

경암 스님(사진)은 "가사회 회원들이 피해민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자는 차원에서 성금을 모금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곳에 힘이 될 수 있는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우 기자**

나눔의 손잡기 성금

김용순 이수진 임재연 이아리 김종현 하혜경 :253,280원

총누적금액: 37,975,060원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친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이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한다.

♥ **나눔의 법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법보시 운동을 전개한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한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벌이는 봉사 현장을 보도한다. 후원을 할 봉사자들은 단체에 직접 접수할 수 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한 곳을 별도로 소개한다.

♥ **나눔의 성금 모으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위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된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는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할 수 있다.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지속적인 연계관계를 형성한다. 특히 생명나눔 실천회의 골수기증 및 혈소판 모으기 행사에 후원사로 참여한다. 또 대원정사 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사업을 전개한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업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해 독자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업도 소개한다.

♥ **나눔장학금 전달** 2005년 하반기에는 지방에 소재한 12개 중립학교 학생 72명에게 사찰체학을 시켜주고 장학금을 전달한다.

♥ **김장배 화백 지상 선목회전** 담원 김장배 화백이 보시한 선목회 30점의 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 또 인터넷 전시회도 열어 작품을 판매한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한다.

“틈날때마다 다시 올게요”

고등학생·외국인들 '나눔의 집' 서 자원봉사



낮에는 청소봉사, 밤에는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하고 있는 '나눔의 집' 자원봉사캠프 참가자들의 모습.

“정소할 때는 꼭 할머니들께 여쭙고요 하세요. 2층 법당은 구석구석 잘 닦아야 해요.”

2월 5일 경기도 광주시에 자리 잡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의 터전 '나눔의 집(원장 원행)'에서 열린 '자원봉사 캠프'. 보조교사 목정하(30)씨의 인솔로 20여명의 고등학생들이 '나눔의 집' 이곳저곳을 비질하고 치우느라 부신다.

그런데 이 학생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자원봉사자들이 있다. 유창하지만 어딘가 서툰 한국말을 구사하는 일본인 자원봉사자들과 전북고등학교에서 원어민 교사를 하고 있다는 미국인 레이첼(한국명 권순우·30)이 그들이다.

이 중 일본 정토진중 승적을 가진 오사우미 타케모리 스님은 '나눔의 집' 내에서는 일본 이름 대신 '봉수'라는 한국 이름만 쓸 정도로 '한국사랑'이 깊다. 성교관대 여학당에 다니고 있는 봉수 스님은 평소 "스님 행세를 하고 싶지 않다"며 합장반배도 마다하지만 아침에는 꼭 법당에서 할머니들

을 위해 기도드린다.

할머니들을 이해하고 싶어 한국말 단어 카드를 들고 다니는 레이첼은 '나눔의 집' 내에 있는 위안부 역사관에서 할머니들이 심리치료 요법 중의 하나로 그린 그림에 큰 감동을 받아 지난해 11월부터 '나눔의 집'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계속 할머니들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은 절반 정도만 성공한 상태다.

이렇게 오랜 기간 머무르고 있는 외국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를 머무르며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전쟁의 아픔을 공감하고, 역사외식에 대한 토론을 한 학생들이나 '나눔의 집'을 체험하고 난 이후 한결 같이 하는 말이 있다.

“시간 날 때마다 이 곳에 오겠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리는 것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어려운 이웃에 좀도리쌀 전달

새마을금고연합회

새마을금고연합회(회장 유용상)는 2월 4일 영등포 '보현의 집(원장 지거)' 앞마당에서 이웃돕기를 위해 '사랑의 좀도리쌀 모으기'를 통해 수집된 쌀을 배분했다.

이번 행사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을 비롯해 대한성공회 푸드뱅크,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스리기 나눔 선교회, 먹거리

리 나눔 협의회 등 5개 단체가 참여, 각각 20kg들이 200여 포대씩 지원받아 산하 복지단체에 다시 쌀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날 행사에 앞서 새마을금고연합 유용상회장과 보현의 집 원장 지거 스님, 성공회 푸드대표 공동대표 김재열 목사는 영등포 보현의 집을 둘러보며 쉼터 노숙인들과 대화를 하고 이웃들에게 나눠줄 가래떡을 찜기도 했다.

김강진 기자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봉사팀 울타리회

“남들과 조금 달라도 사랑스러워요”

“어디든지 도움이 되고 어떤 곳이든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울타리'예요.”

장애아동들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고자 8명의 회원들이 뽕뽕 뭉친 '울타리회'는 어느 목요일마다 그랬듯 2월 3일에도 서울 울타리동병원을 찾아 그곳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었다.

최미애(47) 팀장을 비롯한 3명의 봉사자들이 조율하고 신속하게 비누칠을 하고 물을 끼얹은 곳은 20호 중증 지체장애아동들이 치료를 받는 공간이다. 아이들의 뒤를 돌고 굳어버린 몸을 씻겨주는 자연스런 손놀림은 5년 동안 한결같이 해오다 몸에 밴 것이다.

아이들의 놀이방처럼 꾸며져 있는 301호에서도 울타리회 봉사자들은 아이들을 어르고 달래고 있었다. 301호에서 봉사자

들은 이름 대신 누구누구의 '엄마'로 통한다.

“애들이 엄마, 엄마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진짜 이 아이 엄마구나 싶어요.”

유필수(53)씨가 자신의 힘으로는 일어나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여섯 살 선미(가명)를 끌어안으며 “아이고, 예뻐라”를 연발했다.

5년 전, 한두 번 찾아왔을 때는 아이들의 중증 장애 때문에 밥 먹기조차 괴로웠다는 울타리회 봉사자들. 그러나 “애들은 애들이고 우리를 알아보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우는지 모른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될 때까지 꾸준한 봉사의 길을 걸어왔다.

“앞으로 아이들은 계속 바뀔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아이들 옆에 있을 것입니다.” 김강진 기자



최미애 팀장을 비롯한 울타리회 회원들이 2월3일 서울 시립아동병원에서 중증 지체장애 아동들에게 목욕봉사를 하고 있다.

■후원자를 찾습니다-수원 연꽃마을 '행복한 집'

수원 시청관사에 마련된 연꽃마을(원장 각현) '행복한 집'에는 5명의 남·여 중학생과 정석 스님(총남 예산 묘법사)이 살고 있다. 아이들은 지역 내 소년소녀 가장으로, 스님과 함께 살기를 원해서 식구가 됐다. 벌써 8년째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정석 스님이 '출가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는 오해 속에서 어렵게 모은 식구들이다.

이곳을 두고있는 울타리회는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교육문제가 가장 걱정"이라고 말했다. 아이들의 다양한 재능을 살려 줄 수 있는 예체능 교육을 제공하기에는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울타리회 김선희(53)씨는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접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복지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031)258-5727

무기와 번뇌의 마음을 무념과 반야로 바꾸는 수행방법과 수행단계

서울 법기불교대학 제4기 모집

바른수행과 바른깨침의 길을 제시하는 서울 법기불교대학이 제4기 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불지에결, 기초교리에서부터 불교의 핵심인 참선수행에 이르기까지를 강의와 수행지도, 점검을 통해 이론과 실체를 체계적으로 공부해 나가는 법기불교대학 제4기 과정에 불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서울법기불교대학 강의일정]

차례	강 의 내 용
1강	입재, 불교비로보기 / 사찰의례 (삼귀의, 사중서원, 전각법당, 사찰예절, 합장, 절하는법, 예불문), 108배
2강	중생의 마음 (무기번뇌, 가아-진애) / 천륜의 시간
3강	수행방법 (관법과 염법) / 법담 나누기
4강	요처수행(산행)
5강	기초교리 (4성제8정도, 3법인, 5온, 12처18계, 연기법) / 호흡점점
6강	삼매와 삼매관성, 경계와 번, 업정소멸의 원리 / 선배의 수행경험담
7강	[토요일] 철야정진 / 상기의 극복(멜로디), 자식호흡과 반지식호흡
8강	수행자의 건강관리 / 반법 법담 (도반의 수행담)
9강	좌선과 행선 (1시간) / 수행단계와 수행방법
10강	유여열반과 무여열반 (돈오, 무념, 반야, 삼신불) / 이근관, 안근관, 호흡점점
11강	봉사활동
12강	기복불교, 북방불교, 남방불교의 비교분석 / 멜로디 연습
13강	불교상식 바로 알기 / 설문조사, 발원(정근)
14강	수료식 / 선지식법문

[개강]
·주간반: 2005년 3월 4일(금요일) (오후 2:00 - 4:00)
·야간반: 2005년 3월 5일(토요일) (오후 7:00 - 9:00)

[접수]
·서울법기선원 (T.02-854-1848)
·www.bubkisa.or.kr (한글도메인 '법기사')

[수강료]
·총 95,000원 (교재비 포함)

*강의 내용은 선원일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BUBKI 바른수행 바른깨침 법기선원

사찰 연등 및 전선(별출용) 불자기업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등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요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전구(정품)
▶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종류: 3W, 5W, 10W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할라멘트 6배 (특 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사찰용 (1W, 2W, 3W), 반 영구적인 특수전구(정품)

건전지용 초, 방생, 탐입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길이대

연등 (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기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군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 시공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 ~ 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 ~ 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